



## 08

# 고사리는 농촌체험마을로 변신 중

## 광양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고사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2004년 92만 8,000명이었다. 6년 뒤인 2010년엔 5.7배가 늘어난 532만 3,000명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여행객의 13.9%를 차지하는 수치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체험과 학습을 아우르는 관광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찾아가 볼 만한 농어촌체험마을들이 아주 많다. 농어촌체험관광의 묘미는 휴과 자연을 통한 오감만족의 영농체험과 안전하고 웰빙 건강에 좋은 토속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는 먹거리 체험 등 자연 속에서 우리의 심신을 폭 담가보는 데 있다. 맑은 공기가 있고 들과 숲과 산이 있고 강과 바다가 있는 농어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언제 들어도 구수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곳. 농어촌체험관광을 하며 우리의 뿌리이자 안식처인 농어촌이 더욱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이제 막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마치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을도 있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에 자리잡은 고사리 고사마을이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정겨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분위기다. 고사마을엔 어떤 고사가 있을지 기대된다.



## 고사마을의 멋과 장점

고사마을의 '고사'는 古事일까, 古寺일까, 高士일까. 정답은 높은 고(高), 선비 사(士)자를 써서 高士다. 해방 후 이 곳에 높은 선비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풍수지리에 의해 고사(高士)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옛 고(古)자를 써서 古士라고 썼었는데 이것은 古寺의 변형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마을 뒤 서북쪽에 건립 연대를 알 수 없는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해암당(海岩堂)이라 새겨진 부도가 아직 부도거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절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고사마을은 또 예부터 '고시내'라는 애칭으로 불렸고 마을도로도 현재 '고시내길'로 통하고 있다.

고사마을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먼저 마을 뒤를 감싸고 있는 수려한 산은 도선국사의 전설이 서려있는 백운산이다. 해발 1,218m로 경관이 빼어나고 산세가 완만하여 당일 등산코스로 인기가 많다. 특히 백운산 5대 계곡 중 하나

인 고사계곡은 이미 입소문이 나서 연중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다. 마을 앞에는 모래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섬진강이 흐른다. 섬진강에는 쏘가리, 메기, 잉어, 은어 등의 민물어종과 송어, 농어 등의 바다 어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사계절 낚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백사장이 만들어낸 자연 발생 강수욕장에는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백운산고로쇠약수제, 섬진강마라톤대회, 매실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등 고사마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많다. 고사마을은 남해고속도로 하동톨게이트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하동과 구례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고사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거기에 고사마을은 내부적으로 주민간 협동이 잘 이루어져 전통적인 '함께'의 미덕을 잘 실천하고 있다. 대보름 달집태우기와 단오, 백중의 마을 행사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모여 행사를 즐긴다. 노인잔치와 년 1회 효도관광이 부녀회와 영농회, 청년회의 협력으로 정규적인 마을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공동체의식이 살아 있는 고사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온 마을 사람들의 협력과 정성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 꾸준한 연계추진으로 체험타운 조성이 목표

고사마을 농촌체험마을 사업은 고사마을회를 주축으로 하여 고사친환경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분업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진행 사업으로는 반찬사업, 숯 체험장 운영, 향토구들방 운영 등이다. 반찬사업은 농업지원과의 지원으로 2010년

## |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시기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고
봄	고로쇠약수 체험 두릅 등 산나물 채취 향토음식 만들기 예절 다도 체험 백운산 등반 체험 압화 체험	고로쇠약수채취과정 체험 및 시음 산나물 채취 후 산채비빔밥 시식행사 매실수확 및 매실즙 가공 견학(과수원 개방) 차잎따기, 녹차만들기, 시음하기	마을당산제
여름	섬진강 뗏목 물놀이 마을유적답사 도자기 체험, 염색 체험 숫가마 체험 황토길 및 숲 체험	물놀이 및 수색동물 체험 마을유적 현지답사 체험프로그램 도자 및 염색 체험 숫가마 장작재임 및 불지피기 황토길 걷기 및 숲 체험	마을단오행사 8월 백중제
가을	배, 감, 밤 수확 체험 숲길 산책 감장아찌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병아리 관찰 체험	민박객 및 주말농장 방문객에 과수원 개방 밤송이까기 및 구워먹기 체험 산책로에서 휴식 및 건강 체험 무농약 감으로 장아찌 담그기 체험 무농약 감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 병아리 부화 및 성장과정 관찰 체험	추수감사제 행사
겨울	아궁이 불때기 섬진강 극기체험 향토음식 만들기 연날리기 눈썰매타기	밤, 고구마, 버섯 구워먹기 섬진강 모래톱 극기체험 메주만들기 체험 및 실습 전통연 만들어 날리기 비료포대 썰매타기	정월대보름



두부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고시내 두부’라는 상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고시마을 부녀영농조합법인은 광양원예조합과 계약을 맺어 ‘고시내두부’ 판매의 길을 열었다. 현재 광양시내 학교의 약 40%에 해당하는 학교에 급식으로 고시내 친환경 두부를 납품하여 월 8백 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지역 특산품인 매실을 친환경 작목반을 주축으로 ‘고시내매실’로 생산하고 있다. ‘고시내매실’은 박스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억 6천만원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숲 체험장은 2009년 산림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으나(보조 50%, 자비50%), 아직 예산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황토구들방이 신축되었고 주변 정자나무 문화 체험장과 물놀이 체험장 등이 정비되었다. 앞으로 황토구들방을 기존의 숲 체험장과 연계하여 숲가마 열찜질을 실시하고 도자기 체험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진행될 산촌개발사업과도 연계하여 산막시설 4동과 음식만들기 체험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체험타운의 형태로 어우러지는 그 때가 고시마을 농촌체험마을이 완성되는 날일 것이다.

한편 마을회에서는 민박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 고시마을의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박 가능 농가는 전체 14호로 일일 173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또 고로쇠약수, 꽃감, 도자기, 매실, 두부, 도토리묵, 메주가공 체험 등 농사체험이 가능한 농가도 25호에 이른다. 마을 조경과 환경도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마을진입로에는 선비마을의 의미를 담아 안내판을 만들었으며 마을회관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다. 마을 방문객과 민박객이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테라피로를 만들어 맨발산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등산로 입구에 암반 식수대를 설치하여 내방객 및 주민의





고사마을 이갑규 이장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다재다능 68세 젊은 이장님

농어촌 마을에 가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마을 이장님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 알고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모두 꿰뚫고 있는 이장님을 만나면 처음 방문하는 시골 동네라 하더라도 금방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장의 공식적인 지위는 마을의 대표자이며 지역민방위대장이기도 하고 읍면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보조자이기도 하다. 또한 이장의 역할은 리의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각종 공익활동 협조,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장님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마을행사 개최, 여름철 방역활동 지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행정의 보조자로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과 어려운 이웃 돌봄이 활동, 각종 민원 대행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고사마을 이갑규 이장님도 마을에서 최고 바쁜 다재다능 만능 해결사다. 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갑규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젊은 68세다. 컴퓨터를 잘 다뤄 다압면 인터넷 강사이기도 하다. 전남 e-남도마을 카페에서 2007년도 최우수 마을 카페로 선정된 고사마을카페(cafe.daum.net/jngygosa)를 만든 이도 이갑규 이장님이다. 고사마을카페는 카페지기 이장님의 꾸준한 관리로 고향소식이 궁금한 고사마을 출신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사마을 방문객들과 특산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고 편한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이장님은 카페를 통해 마을을 홍보하면서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

은 감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조력자로서 이갑규 이장님의 역할은 단연 돋보였다.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도 이장님이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마을 관련 자료를 만들고 관련 교육도 직접 참여했다. 이장님 외에는 마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장님의 바람은 체험마을이 꼭 성공해서 젊은 귀농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마을을 내 집 가꾸듯 가꾸고, 마을 사람들을 가족 챙기듯 챙기는 이갑규 이장님.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이장님이 있었기에 고사마을도 이제 농촌체험마을로 활기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장님은 오늘도 내 자식 내 손자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뭘 놈의 규제가 이리 많소?”

농촌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갑규 이장님이 얘기하듯 “모든 게 애로사항”이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는 것부터가 문제다. 이갑규 이장님 역시 사무장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다. 사업비도 늘 부족했다. 마을 공동기금의 열악한 사정으로 보조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사마을에서는 이런 자금 사정을 타파하기 위하여 친환경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자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마을 행사 시 주민들의 찬조와 일부 독지가들의 찬조에 의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종 체험시설과 판매사업의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황토구들방을 신축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예상



황토방 전경 및 내부

치 못했던 규제들이었다. 준비단계 미숙으로 예산 지출이 많아진 것도 문제였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토지전용문제, 측량관계, 소유권이전문제,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힘들어 정도로 절차가 복잡했다. 심지어 냉온수기 하나만 설치하려 해도 사전에 해결해야 할 규제가 너무 많았다. 이런 절차만 간소해 지더라도 농촌마을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냐는 것이 이장님의 건의사항이다.

이런 험난한 과정 끝에 황토구들방은 올 3월에 준공하여 얼마 전 시범적으로 YMCA 청소년들의 체험이 이루어졌다. 쉬운 것부터 하자는 원칙아래 시설면에서는 황토구들방이 가장 나중에 완성된 것이다. 앞으로 차근차근 체험객들을 늘려가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사후보완과 연계체험을 진행해 갈 예정이다.

## 미래를 내다보는 고사마을의 친환경 원칙



수목테라피 전경

고사마을은 지금까지 조성된 체험마을 기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지역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연중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많은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을 이끌어내는 것이 고사마을의 최대 목표인지라 멀리 내다보는 큰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고사마을에서는 꼭 고수하는 원칙이 있다. 마을의 원형과 정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자는 것! 고사마을에서는 나무 하나, 바위 하나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최대한 본래의 모습을 지키는 선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마을 출신들과 후손들이 마을을 찾게 될 때, 고향다움과 농촌다움이 잘 지켜진 채로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리고 대단위 체험객보다는 가족단위 소규모 체험단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체험시설과 기타 생활편의시설도 관광객들만이 아닌 주민들의 여가 생활도 함께 고려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고사마을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가려는 세심한 배려가 녹아 있다. 안과 밖, 전통과 미래, 발전과 보존. 고사마을에서 진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미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